

귀사에 어울리는 종합광고 대행사



Why?



CLIENT FIRST! CREATIVE FIRST! 에이블미디어는 광고주와 하나되고 브랜드와 하나되어 더 큰 하나를 꿈꾸는 광고회사입니다.

- 주요사업
- 미디어
 - 매체광고대행 제작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 기획
 - 온라인
 - PR대행

종합광고대행사 - 에이블미디어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0 F1 출전 선수 순위와 경주용 차량

	1 마크 웨버	1976. 8. 27 호주 레드불 레이싱 팀	
	2 루이스 해밀턴	1985. 1. 7 영국 보다폰 맥라렌 메르세데스	
	3 페르난도 알론소	1981. 7. 29 스페인 스쿠데리아 페라리 알바로	
	4 젠슨 버튼	1980. 1. 19 영국 보다폰 맥라렌 메르세데스	
	5 세바스찬 베텔	1987. 7. 3 독일 레드불 레이싱	
	6 펠리페 마사	1981. 4. 25 브라질 스쿠데리아 페라리 알바로	
	7 니코 로즈버그	1985. 6. 27 독일 메르세데스 GP 페트로나스	
	8 로버트 쿠비차	1984. 12. 7 폴란드 르노	
	9 미하엘 슈미허	1969. 1. 3 독일 메르세데스 GP 페트로나스	
	10 아드리안 수틸	1983. 1. 11 독일 포스 인디아 팀	

‘스피드 축제’ 추월하는 자 영광을 잡는다

모나코 서킷 부럽지 않는 영암대회 올 시즌 챔피언 결정할 승부처 5.615km, 코너 18개에 크게 세 구간... 2.4초면 시속 100km 평음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F1 국제자동차대회 코리아 그랑프리(이하 코리아 그랑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전체 19라운드 중 17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시즌 챔피언 결정을 위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마신의 성능과 드라이버의 기술력, 여기에 영암 인터 내셔널 서킷(5.615km)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지나 더 해져야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상연할 수 있다.

◆질주 분능=영암 서킷은 모두 18개의 코너로 구성됐으며 크게 3구간으로 나뉜다. (그라피 참조) 경기가 열릴 때에도 이 구간으로 나뉘어 기록을 측정하게 된다.

1구간에서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평음을 만끽(?)하자, 240km의 배기량으로 무려 750마력을 내는 12기통 F1 머신 24대가 고막이 찢어질 듯 연신 시동음을 울리면서 귀마개를 해도 소음이다. 머신이 '사나운 짐승'처럼 서킷을 한계선에 뛰쳐나가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고작 2.4초. 눈을 떠보면 사라지고 없다.

1구간 스타트라인을 지나 6초쯤 지나면 시속 300km에

도달한다. 이 때 브레이크를 밟아 80m안에 100km/h로 속도를 줄여야 첫 번째 코너를 돌 수 있다. 그만큼 기술과 머신 성능에 따라 추월도 가능하다.

F1 황제 미하엘 슈미허(독일)는 1995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예선 17위로 출발해 앞선 16대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영암 서킷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

두번째 코너를 통과하자마자 갖는 1.2km의 직선 주로(走路)는 올 시즌 F1이 열리는 19개 서킷을 통틀어 가장 긴 직선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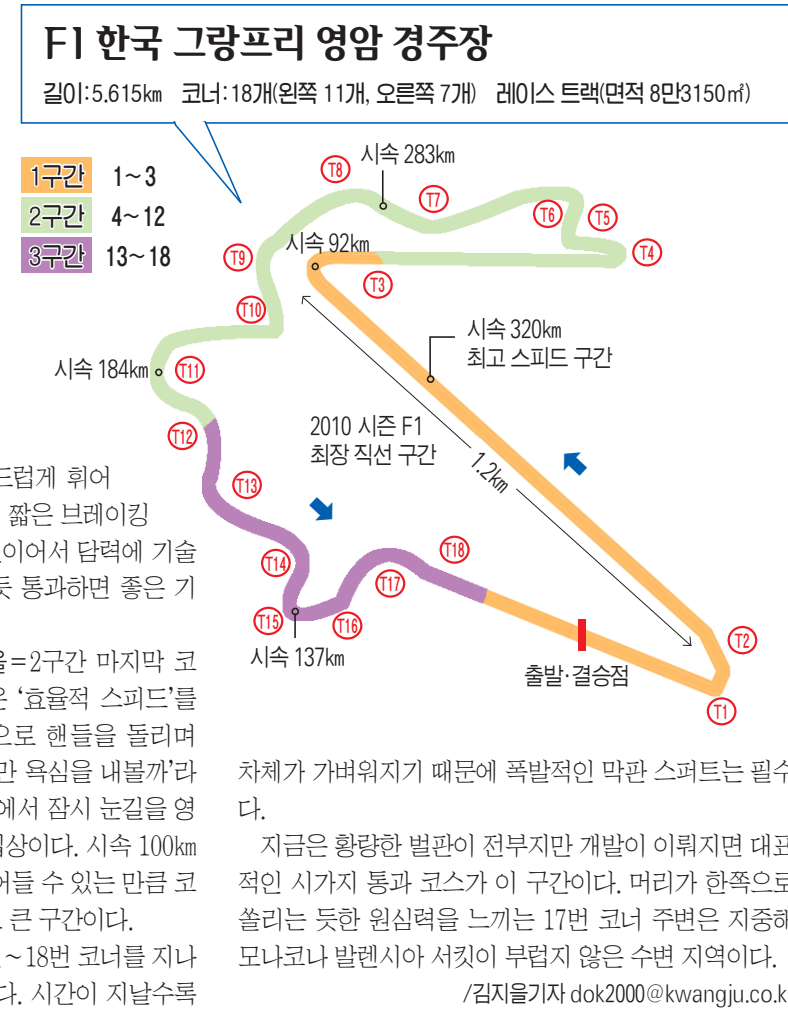
선수들은 이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시속

320km가 넘는 스피드를 낸다. 드라이버들은 속도가 높아지면 시아가 좁아지는 타넨시야현상을 경험하는 구간이다. 직선 주로에서는 현재 1-2위를 다투는 마크 웨버, 루이스 해밀턴간 치열한 속도전이 벌어진다.

직선 주로가 끝나기 100m 전 브레이크를 시작해서 3번 코너로 이어지는 만큼 타이어에 부담을 주는 구간도 이곳. 아스팔트에 검은 타이어를 자국을 남기며 질주하는 머신들을 볼 수 있다.

◆테크니컬 코스=2구간인 4번~12번 코너는 단거리 고난도의 드라이빙 테크닉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영암 서킷에서 3번째로 긴 직선 구간(800m)을 지나



차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폭발적인 마력 스피드를 펼칠 수 있다.

◆지금의 황량한 벌판이 전부지만 개발이 이뤄지면 대표적인 시가지 통과 코스인 이 구간이다. 머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원심력을 느끼는 17번 코너 주변은 지중해 모나코나 발렌시아 서킷이 부럽지 않은 수변 지역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영암대회 알고보기

F1 경주장을 찾은 전 세계 관람객만 20만명, TV 시청자만 6억명이다. 글로벌 경기 참예에도 불구하고, 2010 포뮬러 원(F1) 월드 챔피언십 12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GP)가 열린 Monza 서킷 주변 스탠드(11만5000명)는 자국 국기를 흔드는 8만여명의 관람객들로 가득차다.

결승전이 아닌, 연습 경기와 예선전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관람객들이 스탠드를 채웠다.

무엇이 이들을 경기장으로 모으게 했을까.

고막에서 고통이 느껴질 듯 연신 연신 뿜어져 나오는 굉음만 있는 게 아니다. 규정을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게 F1 대회다. 순위권 다투는 드라이버가 두 배대로, 발매권이 달려들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미트스톱' 등 경기의 즐거움을 주는 F1 대회의 '변(變)'인 규정과 용어를 알아본다.

19차레 레이스 결과로 챔피언 결정

포뮬러(Formula)는 자동차를 뜻하는 게 아니라 경주용 차량이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현재 F1 운영 주체인 국제자동차연맹(FIA)이 1946년 경기 규칙을 통일하고 1950년 첫 F1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World's Drivers' Championship)'을 열면서 F1의 역사가 시작됐다. 60주년을 맞은 올해 F1은 지난 3월 14일(결승전 기준) 바레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19회로 구성된다.

순위는 전체 그랑프리 참가 성적을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며, 각 팀당 2명씩인 드라이버 점수 합계를 팀 챔피언이 결정된다.

세 번의 예선으로 출발 순서 정해

라온드별로 3일간 펼쳐지는 일정 중 첫날은 연습 주행, 둘째날 예선, 3일째 결승 레이스가 펼쳐진다. 사흘간 치르는 경기에서 예선은 3번 치르고 본선 경기에서는 예선

0.001초의 승부... 올해부터 중간급유 금지

성적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출발한다.

첫번째 예선에서는 12개팀 24명의 선수가 20분 동안 자유롭게 레이스를 펼치며, 기록은 전체 기록의 합산이 아닌 팀(경주장 한 바퀴) 최고 기록을 사용한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상위 7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17명의 선수가 15분 동안 두 번째 레이스를 펼쳐 다시 7명의 기록 순으로 탈락시킨다. 마지막 예선에서 남은 10명이 10분 동안 레이스를 펼쳐 결승 레이스 출발 순위 1~10위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출발 순위 1위를 '폴포지션'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속도의 예술’ 피트는 눈 돌리려

피트는 머신의 타이어 교체와 정비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한다. 출발선 옆, 팀마다 공간이 나눠져 있다. 경주차가 들어서면 20명 정도의 피트 크루(pit crew: 정비 요원)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2.9초 안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장면은 최고 볼거리 중 하나다. 언제 누가 어떻게 타이어를 교체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요동친다.

깃발도 무조건 혼드는 게 아니다

F1 머신은 깃발 신호에 따라 통제된다. 따라서 경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깃발의 색과 모양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요긴하다. ‘녹색’ 깃발은 트랙 위 위험 상황이 없어졌으니 맘껏 달리라는 신호다. ‘황색’은 트랙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 이때 드라이버들은 추월할 수 없다. 황색은 뒤에 추월을 시도하는 더 빠른 경주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흑색은 경기 도중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발령되는 깃

발을 3바퀴 이내에 피트로 돌아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백색은 ‘주의’신호로, 트랙에 열물이나 기름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적색은 레이스 중 사고가 났다는 의미로 더 이상 경기가 어려울 때 등장한다. ‘체커기’로 불리는 체크루프 깃발은 선수가 끝난 레이스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응원 대상 미리 정해라

F1 드라이버는 세계에 단 24명 뿐이다. 한국 팀이나 선수가 없는 게 흠이라면, 그나마 24명 중 한 명을 정해 응원하면 흥미가 더해진다. 올 시즌 모나코, 터키, 헝가리에서 우승하면서 승점이 가장 높은 미르베르(레드불 레이싱),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흑인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맥라렌), 2009년 챔피언 젠슨 버튼(맥라렌), 올 시즌 복귀한 미하엘 슈미허(메르세데스) 등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수다.

역할을 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금규 금지다.

1983년 이후 17년 만에 자금규 금지 규정으로 경주차는 150kg에 이르는 기름을 가득 싣고 달려야만 한다.

머신 모양이 바뀐 것은 물론 무게 중심 변화로 무게 배분도 달라졌고 머신 무게 역시 기존 605kg 이상에서 620kg 이상으로 높아졌다. 레이스 후반 가벼워지는 머신의 무게에 따라 치열한 순위 싸움도 흥미를 더해준다.

변경된 매질 방식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난 시즌까지는 대회마다 1일부터 8일까지의 드라이버에게 각각 10-8-6-5-4-3-2-1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10위까지 점수를 주고 점수의 폭도 커졌다. 즉 1위부터 10위까지 25-18-15-12-10-8-6-4-2-1점제를 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영암대회 용어 팁

- ▲그리드(Grid) 스타트 위치를 뜻하는 말로, 지그재그로 열릴 때는 2열식이 일반적이다.
- ▲랩 타임(Lap time) 코스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 ▲레코드 라인(Record Line) 서킷 트랙을 가장 빠른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가상 주행선.
- ▲리타이어(Retire) 경기 중 사고나 고장으로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 квалификация(Qualifying) 레이스의 예선을 의미한다.
- ▲패독(Paddock) 서킷 트랙 안쪽에 마련된 특별구역으로, 검차와 정비, 경주차 보관 등을 위해 마련한 구역.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 ▲숏컷(Shortcut) 코스가 아닌 지름길로 가로질렀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주차의 4바퀴가 모두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의성이 있고 이로 인해 드라이버가 이득을 볼 경우 페널티를 받는다.
- ▲폴포지션(Pole position) 예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드라이버가 결승 레이스 때 가장 앞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1열의 가장 유리한 맨 앞 그리드를 폴포지션이라 한다. 폴포지션에서 출발, 1위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을 폴푸 피니시(Pole to finish)라고 한다.
- ▲피트(Pit, 피트크루(Pit crew)) 피트는 서킷 안에 마련된 정비소, 피트에서 레이스를 지원하는 팀을 피트크루라고 한다. 각 레이스 특별규칙으로 인員 수는 제한된다.



주요사업

- 미디어
- 매체광고대행 제작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 기획
- 온라인
- PR대행

종합광고대행사 - 주니퍼 커뮤니케이션즈

www.youfirstcom.com

Why?

성공한 광고주 뒤에는 반드시 최고의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열광하는 브랜드 뒤에는 반드시 열정적인 크리에이티브들이 있습니다. 광고는 과학도 예술도 아닌, 오직 브랜드피워를 키우기 위한 미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광고는 Hand made도 Hand made도 아닌 "Soul=made Communication"이어야 합니다.